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장청김성태함장
의저서오두막평지에서가려쓰다
밖이각이천시년시일이월수병정승스김
여배기때론세날은양함게사오고시일은
구도에서을은대신해사쓰이즐은수
스외계사오고시포라고수
과외지대호자년
일수이대내년
평범하게사는
이라고되고
스하게사는일
한스마음은단
다리다내술은직
이비주는거승은
늘은거승은변이이고
사람과사람사이른가르다
이허물고다외를늘은아야한다
다지름까지쌍하은변은미년여배
중으로은마음이연호야만나스아있
함은게야사함은음을차야야한다고
세상을사오다가감은길히마그하면절망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5 / 4



세상을 살다가(64x46)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언론과 정치
처음 마음으로	08	삼륜이 정정하여 불위도용(不違道用)이다.
법정스님 책 속의 책	13	씨알의 소리
따뜻한 이야기	16	아내의 만찬
내 마음속 풍경	19	사람 도리 실천하며 사는 어느 부부가 아들에게 보낸 메일
참교육 이야기	22	수명 다한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옳은가?
아름다운 마무리	26	군세계 살아온 지난 날 4월 결연 대상자 - 이수길님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8	소비에는 책임이 따른다. - 우리는 왜 음악을 공짜로 듣게 되었는가?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31	여보 미안해
나를 다시 세워주는 인연들	34	바람이 꽃피우다
사색의 뜰	38	책임을 다하는 삶
공감대화로 소통합니다	40	공감대화 세 번째 항목 '바람'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특별보고	48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안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4월 1일 발행 / 통권 242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언론과 정치

글·법 정(法 頂)

1

〈씨알의 소리〉가 다시 복간된다고 하니 실로 감회가 무량하다.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씨알의 소리〉에 참여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 땅의 얼룩진 언론사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하고 씁쓸한 감회가 앞선다.

여러분이 겪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씨알의 소리〉에 글을 쓰기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였다. 글은 필자의 생각과 뜻을 전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이 생각과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이 번번이 꺾일 때마다 분노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어떻게 하면 당국의 검열에 꺾이지 않고 글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다 보면, 글 쓰는 사람의

자존심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꺾이건 말건 하고 싶은 소리나 하고 보자고 나서면 실린 글보다는 꺾인 글이 훨씬 많아, 문맥은 고사하고 문장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 〈씨알의 소리〉에 글을 쓰기가 얼마나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알 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함 선생님께서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마디 하기 위해 전에 천 마디 말을 제 속에서 먼저 버려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한 줄 글을 쓰자면 백 줄을 제 손으로 우선 꺾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다…….”

1970년대까지는 이렇게 해서라

2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놓고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시정의 폭력배들이나 합직한 우격다짐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으니 그 끝은 뻔하지 않은가.

양식을 지닌 언론이 없으니 사이비 언론이 정권의 북장단을 치면서 갖은 추태를 연출해온 것이 또한 이 땅의 현대 언론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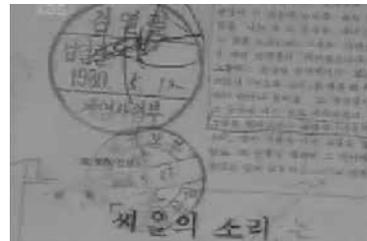
제도권의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보다는 흘러다니는 이른바 ‘유비통신’에 귀를 기울이던 것이 한때 이 땅의 현실이었다.

정권 당사자들이 뒤가 썩고 자기네 범죄 사실이 드러날 때는 모두가 ‘유언비어’로 몰아붙였던 것이 또한 이 근래의 정식이었다. 제도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짐이 없이 민간에 흘러다니던 그 ‘유언비어’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가 사실이요 진실이요 현실임을 우리는 빈번히 겪어왔다.

무릇 유언비어란 언론이 제 기능

도 〈씨알의 소리〉는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권 당사자들은 아예 잡지 자체를 폐간시키고 말았다. 방송과 신문을 통폐합이란 이름 아래 목을 조르고 입을 만한 잡지도 더 나올 수 없도록 짓밟아 버린 것이다. 실로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군사 깡패들의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가 무엇이고 언론이 무엇인지, 정치와 언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가까져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무리들이 폭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왔으니, 무고한 백성들이 겪은 괴로움이며 나라꼴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계엄사령부의 검열필 도장이 찍힌 씨알의 소리(1980년 5월)

을 하는 사회에서는 나올 소지가 없다. 인류 사회에 있어 천부의 권리인 보고 듣고 알리는 일을 억지로 가로 막기 때문에, 그 힘이 엉뚱한 통로로 새어 흐른다. 우주의 신비는 살아서 움직인다. 이 살아서 움직이는 힘을 무엇으로 막는단 말인가. 어리석고 부질없는 한때의 착각이다.

3

칼자루를 쥐고 다스리는 쪽에서 보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언론이 못마땅하고 귀찮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공동체의 의견이 서로에게 소통되고 존중되어야 그 공동체가 병들지 않는다.

거두절미하고, 만약 1980년대에 들어서 신문이나 방송·잡지 등 언론이 활성화되어 제구실을 했다면, 이른바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언론의 말살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부패와 말살로 이어진

것이다.

제도언론 속에서 북장단에 맞춰 놀아난 정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은 국민과 나라의 희생이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국민의 입과 눈을 강제로 가려놓고, 어떻게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던 말인가. 그야말로 웃기는 수작이다.

순진한 백성들을 우롱하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그 뒤에서 갖은 불의와 부정과 비리를 자행한 제5공화국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의 실상이란 점이 우리를 더욱 분하게 하고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언론을 교살한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역대 정권에서뿐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서 우리는 역력히 보아 오고 있다. 언론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정치마저 부재하고 병들고 만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정권을 쥔 사람

들은 어찌서 그때마다 망각하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언론은 그 사회의 공기(公器)이고 또한 공기(空氣)와 같다. 언론이 공기(公器)이기 때문에 양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책임이 따른다. 언론은 또한 그 사회의 공기(空氣)와 같기 때문에 그것이 흐리면 숨이 답답하고, 결핍되면 그 사회 전체가 질식하게 된다.

의무를 등지거나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는 단연 배격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회의 공적(公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식을 지니고 그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원하고 정치가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이 건전한 언론이고 사이버 인지는 정치권력에서 상관할 것이 아니라 독자와 청취자(국민)의 양식이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와 청취자가 곧 현실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열린 사회란 밖으로 통상이 확대되고 여행이 자유롭게 된 것만으로는 그렇게 부를 수 없다. 무엇 보다는 말길과 듣는 길이 열려 서로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고 이해와 믿음과 협력으로 다져진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살피고 거드는 것이 언론의 기능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막힌 사회를 청산하고 활짝 열린 사회에서 마음놓고 살아 봤으면 좋겠다. 1988

-탕빈 충만 중에서



함석헌 선생님과 불일암에서(1975년)

삼륜이 청정하여 불위도용(不違道用)이다.

글·덕 운(德 耘)

計功多少量彼來處(계공다소량피래처)
村己德行全缺應供(촌기덕행전결응공)
防心離過貪等爲宗(방심이과탐등위중)
正思良藥爲療形枯(정시양약위료형고)
爲成道業應受此食(위성도업응수차식)

총림에서 공양할 때 항상 외우는 오관계(五觀偈)입니다. 우리 길상사공양간에도 적혀있는 계송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는 바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도업(道業)을 이루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먹거나 먹고 살기 위해 먹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배만 고프지 않으면 되지, 구태여 맛있게 먹겠다는 탐착심을 내는 일에서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조 지눌 스님께서는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삼륜(三輪)이 청정한 것을 관하여 도를 쓰는데 어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보조스님께서 <반야심경>을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반야심경>은 바로, 만물의 실상을 잘 관조하면 모든 것이 공(空)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주만유의 실체가 공(空)한道理,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

識)의 오온이 잠시 모여서 거짓으로 구성된 ‘나’가 공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놓은 것이 (반야심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空)을 체득한 분이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입니다. 관자재보살의 ‘관(觀)’은 범어로는 아바로키타(Avarokita)라고 하는데, 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관이 자재하다(觀自在)’는 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양할 때에는 이러한 <반야심경>의 뜻을 잘 헤아려서, 마땅히 모든 것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자재(大自在)를 얻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바로 관자재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곧 삼륜(三輪)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삼륜은 3가지 수레바퀴로서, 베푸는 사람(施者), 받는 사람(受者), 베푸는 물건(施物)을 말합니다.

곧 아끼거나 탐착하는 마음이 남김없이 사라지지 않는 그 삼륜이 저절로 공적(空寂)한 경계에 들어가서 청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자(施者), 수자(受者), 시물(施物)이 청정함을 이룰 때 지극한 아름다움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마치 들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꽃은 결코 예쁘게 피고자하는 조작된 마음 없이 무심하게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경전에 불위도용(不違道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네 글자는 매우 깊은 뜻을 지니고 있고, 수행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를 썬에 어긋나지 말라’ 이 말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도를 닦는 사람의 자세가 이러이러해야함을 꼬집은 말입니다.

도를 닦는 마음 자세, 이것은 수행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머리에 오관계를 언급했으니 공양과 관계된 재미있는 일화로서 불위도용(不違道用)의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사(傳燈史)에서 빛나는 서른세분의 조사 중에 23대 조사인 학특나(鶴勒那) 존자(尊者)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의 주위에는 항상 오백 마리의 학들이 있어 존자를 따라다니고 있었으므로 멀리서 보아도 금방 존자의 행방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들은 주위에 아무데나 똥을 싸서, 비가 오면 똥냄새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이 학들은 아무리 쫓아도 존자의 걸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존자는 자기 스승인 마나라(摩拏羅) 존자를 찾아가서 연유를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과거의 업이 있기에 오백 마리의 학이 따라다닙니까?” 마나라 존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거 전생에 도를 닦을 때 네 주위에 오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

리고 있었다. 어느 날 용궁으로부터 공양청(供養請)을 받은 너는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서 용궁을 다녀왔다. 뒤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까닭을 따졌느니라. ‘스님께서 항상 법(法)에 평등한 사람은 먹는데 평등하고, 먹는데 평등한 사람은 법에도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서는 어찌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그 말을 듣고 상수제자(上首弟子)에게 너의 가사자락을 잡게 하고 나머지도 그 뒤를 이어 가사자락을 잡게 한 뒤, 눈을 감게 하여 찰나에 용궁으로 데리고 갔다.

오백 명의 제자들은 산해진미로 차려진 용궁의 진수성찬을 받고 한 그릇씩 먹는 순간 복이 감(減)해졌기 때문에 다음생인 이생에는 모두 학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너의 법은(法恩)이 중한 줄 알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학들이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마나라(摩拏羅) 존자는 하

늘을 쳐다보고 학들을 위해 계승을 읊었습니다.

心隨萬境轉 (심수만경전)이니
轉處實能幽 (전처실능유)라.
隨流認得性 (수류인득생)하면
無喜亦無憂 (무희역무우)로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굴러가나
구르는 곳마다 실로 그윽하여 그자취가 없도다.
흐름을 따라 자성을 분명히 알면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네.

학들은 이 계승을 듣고서 모두 그 이치를 깨닫고 존자의 주변을 떠나 다른 곳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우리의 자성(自性)은 본래 이렇다 저렇다 할 정해진 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경계를 따라 바뀔 뿐입니다. 마치 거울은 정해진 형상이 없지만, 앞에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 그 나타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인연 따라 흘러가는 곳에서 자성을 인식하면 기뻐할 것은 무엇이며 슬퍼할 것이 무엇이나는 게

송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가 그대로 ‘불위도용’의 법문입니다.

법에 평등하면 먹는데도 평등하다는 것은 올바른 도를 쓰는 것이며, 평등하다고 해서 스승을 쫓아 용궁으로 가겠다는 것이나 용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올바른 도용이 아닌 것입니다. 엄연히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간장종지에 담기는 물의 양은 간장종지 밖에 안되며, 사발에는 사발만큼 담기고, 세숫대야에는 세숫대야만큼 담기며, 항아리에는 항아리만큼 담기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복 수용을 많이 하려면 자기의 복 그릇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빗물이 담기듯이 자기의 마음그릇만큼 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쓸데없는 탐욕을 버리고 분수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도(道)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하고, 그 도(道)를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매일 있는 공양이지만 공양의 도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을 때 깨달음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 질 것입니다.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도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공양하실 때 공양계를 외우고 먹는 습관을 길러 보십시오. 쓸데없는 음식에 대한

- 불기 2559년 2월 초하루 법문
(2015년 3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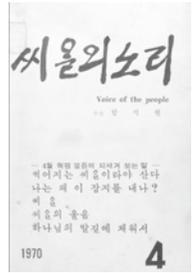
2015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초청 강연 농부 철학자 **윤구병**
4월 26일(넷째 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겠다.’

- ‘무소유’표지에 실은 윤구병 선생 추천사

윤구병님은 어릴적 공부는 제법 했으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전여행을 떠났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그에게는 위로 형이 여덟 명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의 이름은 일병이고, 아홉 번째 막내로 태어나 '구병'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을 나오고 월간 '뿌리깊은나무' 편집장을 거쳐 충북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와 어린이 책 기획자로 활동하다 1995년 전북 부안으로 낙향, 농사를 지으면서 대안교육을 하는 '변산교 육공동체'를 설립하여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텃밭 효소 술 같은 것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동체 삶의 소중함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



씨알의 소리

주간 함석헌

함 선생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종로에 있던 사상계사(思想界社)에서였다. 사장인 장준하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가, 때마침 나보다 한 걸음 늦게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함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가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던 6·3사태가 있던 그해 봄이었다. 그날 동국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꼬장꼬장한 모습이었다. 그 무렵 나는 해인사 퇴설당선원에서 정진하던 때였다.

리일로 거의 주일마다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때 <씨알의 소리> 편집회의는 주로 면목동(중곡동?) 전세방에서 살던 장준하 선생님 댁과 친촌의 김동길 박사 댁과 내 거처인 봉은사 다래헌으로 옮겨 다니면서 열었다. 어디를 가나 정보기관에서 뒤따라다녔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의 신경은 자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씨알의 소리 1989년 4월호 및
탕민 총만 p88 중에서

두 번째는 함 선생님께서 미 국무성초청으로도 미하기 직전(뜻으로 본 한국역사韓國歷史)를 다시 손질하기 위해 해인사의 한 암자(金仙庵)에 들어와 계실 때였다. 이 무렵에는 자주 뵈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함석헌 선생(1901년~1989년 2월)은 기독교는 물론 동양 고전과 인도철학에까지 해박했으니 '자신의 언어를 추구했던 독창적인 사상가였으며, 무엇보다 절망적인 독재정권의 탄압 아래서 침묵하지 않았던 실천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그가 비폭력과 평화 사상으

1970년대에 들어서 서울 봉은사 다래헌(茶萊軒) 시절,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씨알의 소

로 폭압에 맞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씨알' 곧 민중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부터가 씨알의 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씨알의 소리』를 창간한 때는 1970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4·19가 일어난 지 10년, 선생이 일흔 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 잡지를 펴내면서 언론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신문이 무엇입니까? 씨알의 눈이고 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씨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보여주지 않고, 씨알이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일을 입을 막고 못하게 합니다. 정부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학교·교회·극장·방송국이 다 강도의 앞잡이가 되더라도 신문만 살아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중의 눈을 쥐고 입을 쥐고 손발을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아니합니다. 집권자는 아무리 강해도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 씨알은 영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러한 현실에 분개하고 한탄스러워했습니다. 독재에 맞서고, 씨알의 눈과 입이 되기 위해 창간한 이 『씨알의 소리』는 통권 제2호가 나오자마자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간 조치를 당합니다. 1년이 넘는 긴 재판을 거쳐 승소하여 다시 나올 수 있었습디만, 수많은 검열과 탄압, 재정난 등을 겪습니다. 1980년 7월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폐간되기까지 이 잡지는 그 시대 양심의 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씨알의 소리』 강제 폐간 이후에도, 군사정권은 여든이 넘는 함석헌 선생에게 가택연금, 미행, 전화 도청 등 갖은 방법으로 감시와 핍박을 가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운동의 결실이 맺어졌고, 1987년 12월 5공 정권 말기 민주화의 열기 속에 언기법(言其法)이 폐기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이루어질 희망가운데 씨알의 소리 복간신청을 문공부에 내었으나 7개

월만에 (법적처리 기간은 신청한지 1개월 내) 1988년 7월, 강제 폐간 8년 만에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고, 편집위원 13명(법정스님, 김동길, 한승헌, 계훈제 외)을 위촉하고, 1988년 12월 『씨알의 소리』는 다시 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던 함석헌 선생은 “모진 역사의 풍랑을 이겨 온” 씨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띄웁니다.

“저들은 씨알을 칼로 자르면 쉽게 죽을 줄 알았겠지만, 씨알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법 없습니다. 죽이면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고, 다 죽어 없어졌다가도 굳은 땅껍질을 들추고 일어나는 들불 같은 씨알입니다.(중략) 전국 곳곳, 어느 산 어느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씨알들의 꿈틀거림, 작은 외침, 부르짖음이 함성이 되고, 마침내 도도한 물결을 이루어 불의의 세력들을 밀어붙인 것이 작년 6월의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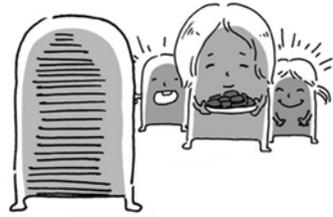
아닙니까?(중략)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씨알의 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씨알의 소리』도 이제는 여러분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씨알의 소리〉 1989년 4월호의 법정스님이 함석헌 선생에게 드린 추모 글에는 “돌이켜 생각하면, 함석헌 선생님과 같은 큰 어른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의 삶이란 그 자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세계를 통해서 거듭거듭 형성된다. 이런 사실을 상기할 때, 함 선생님을 어렵고 험난한 우리시대의 큰 스승으로 우리들 가슴 속에서 오래 오래 삶을 함께 하리라 믿는다.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셨다.



아내의 만찬

오늘도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새벽부터 인력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공사장 일을 못하니 벌써 녀 달.



인력시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랑비 속을 서성거리다 쓴 기침 같은 절망을 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지난달부터 시내에 있는 큰 음식점으로 일을 다니며 저 대신 힘겹게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과 함께한 초라한 밥상 앞에서 죄스러운 한숨을 내뿔었고 그런 자신이 싫어서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 아이들만 집에 남겨두고 오후에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목이 긴 작업 신발에 발을 밀어 넣으며 빠져 나올 수 없는 어둠을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날까 봐 발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벌써 여러 달째 밀려 있는 집세를 생각하면 어느새 고개 숙인 난쟁이가 되어 버립니다.

저녁 즈음에 오랜 친구를 만나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일자리 대신 삼겹살에 소주를 샀습니다.

술에 취해, 고달픈 삶에 취해 산동네 언덕길을 오를 때 야윈 나의 얼굴 위로 떨어지던 무수한 별들.

집 앞 골목을 들어서니 귀여운 딸아이가 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고기 사왔어! 아빠 오면 먹는다고 아까부터 기다렸단 말이야”

일을 나갔던 아내는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장님이 애들 갖다 주라고 이렇게 고기를 싸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준이가 고기반찬 해 달라고 하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집세도 못 내는데 고기 냄새 풍기면 주인집 불 낮이 없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지금이야 저녁을 준비한거예요. 11시 넘었으니까 다들 주무시겠죠 뭐” 불고기 앞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티 없이 밝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내는 행복해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잠자리에 체할까 겁난다.”

“엄마 내일 또 불고기 해줘 알았지?”

“내일은 안 되고 엄마가 다음에 또 해줄게. 우리 준이 고기가 많이 먹고 싶었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을 달래며 제 쪽으로 고기 몇 점을 옮겨 놓았습니다.

“당신도 어서 드세요”

“응. 난 아까 친구 만나서 저녁 먹었어. 당신 배고프겠다. 어서 먹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고기 몇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달빛이 내려앉은 수돗가에 쪼그려 앉아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연은 아내……:

아내가 가져온 고기는 음식점 주인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기 없는 아내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쟁반의 고기를 비닐봉지에 서둘러 담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구워준 고기 속에는 누군가 씹던 껌이 노란 종이에 싸인 채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볼까 봐 전 얼른 그것을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아픈 마음을 꼭꼭 감추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착한 아내의 마음이 찢어
질까 봐…….

- 이철환 지음(연탄길 중에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힘이 되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현실의 벽은 결혼 전 행복만을 다짐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에 힘든 삶을 잠시 내려놓지만,
제자리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이 당신에게 내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되어주는 평생 내편이 곁에 있기에
혼자 일 때 보다 백만 배, 천만 배 행복합니다.

이 달의 명언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 법정스님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 '따뜻한 하루'

* 아름다운 마무리 동전 모금 캠페인 :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2015년
에도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전 모금통은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 사무국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노인 자살 및 빈곤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맑고 향기롭게

사람 도리 실천하며 사는 어느 부부가 아들에게 보낸 메일

글 • 이정숙(수필가)

남편은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한다. 그리고 엄
마를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에 태우고 약들
챙겨 드시게 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해 드린다.
시리얼에 바나나랑 견과류 넣어 드리고... 계란
프라이도 해 드리고... 늦게 자는 데다 한밤 중
에 엄마 시중도 하는 나에게 아침에 늦잠 자게
하려고 열심히 도와준다.

미국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서두이다. 이 부분
까지 읽다가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볼렀다. 그녀의 남편이 자신
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
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
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비록 남의 부모 얘기
지만 정말로 고맙다.

그들 부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
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한 다
음 그곳에서 정착했다. 이젠 내외 모
두 은퇴를 하였는데 치매에 걸린 친
정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녀는 남
편이 못내 안쓰럽다. 은퇴 후에 꼭 하
고 싶어하는 공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몹시 바쁘다.
집안 곳곳을 가꿔야 하고 손질할 것
들도 많다. 일주일에 하루씩은 성악
을 배우러 다닌다. 그 와중이다. 날
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느라 실
름이 없지만 무엇보다 장모님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둔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면 한결
일이 줄어들 텐데 그들 부부는 그럴

의향이 눈꼽만큼도 없다. 오히려 요양원에 보냈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돌봐드리고 있다. 벌써 3년 세월이다. 다음은 차매 걸린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게 된 사연을 그녀의 블로그에서 담아왔다.

우리 엄마는 차매이다. 차매전문 요양원 광고를 보니 집에서 모시는 것 보다 전문가들이 있는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별 다섯 개 오성짜리 요양원에 자리가 나서 엄마를 보낼 때 참으로 기뻐다. 꼭 복권을 맞은 것 같았다. 엄마가 그곳에 5개월 계신 동안 보니 요양원이 광고와 너무나 달랐다. 엄마가 그곳에 계속 계시면 얼마 안 돼 나도 못 알아보는 식물인간으로 변할 것 같아 부랴부랴 집으로 모셔왔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곳 노인전문 의사와 의논해서 요양원에서 접수하던 우울증 약, 차매약, 진통제 등 10여 가지약을 다 끊으니 심하던 기침도 멎고 엄마의 상태도 아주 좋아졌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집으로 오신지 2년 5개월. 아기가 같이 변한 엄마가 집에 계시니 매일 웃을 일도 많고... 엄마 때문에 남편과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어 집안 분위기도 훨씬 화기애애해졌다. 나는 내가 엄마를 보살필 수 있

을 때까지 집에서 보살펴 드리려고 한다. 남편은 자신이 퇴근하면 엄마가 막 반가워해서 참 행복하단다.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시중을 들어 주고 놀아드린다. (이때만 해도 그녀의 남편은 재직 중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작년 추석날의 소회를 적은 부분이다.

엄마한테 오늘이 추석이라고 말씀드렸다. 엄마는 눈을 깜빡이며 추석이 뭐하는 날인지 물으셨다.

“추석이 뭐하는 날이죠?”

“추석은 송편 먹는 날이에요”라고 일깨워 드렸다. 요즈음 밥상 앞에서도 잡수시는 것조차 잊어버리시고 멍하니 앉아계셔서 손가락을 쥐어 드리고 먹여드리고 하는데 떡을 잘 잡수셔서 참 좋았다. 대문을 열고 엄마께 달을 보여드리면서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달”했더니 엄마가 “어디 어디 대 남산 위에 대지.” 뒀구 절을 노래하신다. 얼마나 신통한지 남편이랑 막 박수를 쳐 드렸다.

이제 그녀는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 중이다. 밥상 앞에

서도 먹는 걸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계실 만큼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연락해 다음 달 친정엄마 생신에 오라고 하고, 아들들한테도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은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다.

너희들과 할머니 생신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 할머니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제는 밥상 앞에서도 잡수시는 것도 잊어버리시곤 한다. 할머니가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때, 작은 생일파티를 열어드리고 싶다. 바쁜 너희들이 우리 집까지 오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우리가 너희 집 중간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갈게. 좋은 호텔이랑 식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자. 나는 할머니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알려드리고 싶고 또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다. 너희 아빠의 엄마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랑의 표현도,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 못해 늘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만약 다른 날 하고 싶다가나 혹은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알려다오.

참으로 감동스럽다. 그녀가 아들에게 보내는 메일에는 가족 간의 도리가 무엇이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사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봉사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지 않는가. 그녀는 이러한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없이 불현 듯 떠나가신 시어머니가 내내 애석하다.

2015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대상 : 전국 고등학생(40명 내외)
- 선정 발표 : 4월 3일(금)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4월 17일(금) 길상사 소강당
- 문의처 : 02)741-4696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맑고 향기롭게

수명 다한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옳은가?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공포의 신종 바이러스 에볼라, 구제역, 사스...등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기는 가공할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현대의 학이 개발한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가공할 슈퍼 박테리아를 비롯해 대지진, 자연재해 등 지금 인류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아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기기 위한 욕망과 자연에 대한 오만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메가톤 급 핵폭탄 100개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데, 지금 인류는 지구를 여덟 번을 폭파하고도 남을 약 3만 2천여기, 약 5천 메가톤

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핵무기만도 4,600여 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디 핵무기 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이름의 핵발전소가 세계 442개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핵발전소까지 합하면 791기나 됩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이 또다시 연장돼 2022년까지 앞으로 7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입니다. 원안위의 결정대로라면 오는 4월부터 월성원전 1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그것도 앞으로 7년간이나 더 가동해도 좋을까요? 원안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가공할 공포를 목격하고서도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원안위는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밀실에서 9명의 원안위원 중 그것도 2명이 퇴장한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을 보면 2013년 8월 기준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 3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35년까지 40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은 탈핵을 결정하였고, 중국과 영국은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하거나 신규원전을 허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수명을 연장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

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670건 이상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 버스비 영국 얼스터대 교수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로 25년간 20만 명이 숨진 사고를 능가한 앞으로 100만 명이 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또한 체르노빌의 경우 1440억 파운드(253조3435억 원)정도였지만 후쿠시마의 경우 1880억 파운드(331조5378억 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도 원자로에서는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밀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 뿐만 아니라 일본 동북부 전체의 방사능 오염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로 유출된 방사성 세슘(세슘 137)의 양이 1만5,000테라베크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사성 세슘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로 반감기는 30년입니다. 1만5,000테라베크렐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방사성 세슘보다 168.5배나 많은 양입니다. 히로시마 원폭보다 7만 2000배나 심각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대부분의 원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재앙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핵발전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습니다. 월성 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원전의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하는데 캐나다는 4조원이 들어간다고 인정한 반면, 한국은 1조원도 안 되는 약 5천 6백억 원 정도로 설비 교체 및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원안위의 발표가 말해 주는 것

은 무엇일까? '원자력 안전법' 103조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전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원안위의 끝없는 거짓말입니다. 월성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월성 원전 주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 울산 등 405만 명만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주변에는 부산과 대구, 창원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 국민, 아니 우리자자손손까지 이 땅에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원안위원들은 무슨 배짱에서 재가동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위원 9명 중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평화가 아닌 휴전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돼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원전이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공격의 충격으로도 원전은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모두 국내 고장사고로는 최고등급인 2등급 사고가 나란히 발생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부품과 기기, 수백~수천km의 전선과 배관, 수 만개의 용접지점 수천 개의 밸브 모두 점검,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30년 이상 된 건물과 주요 부품들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 사업자가 수명이 이미 끝난 원전을 안전여유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수명연장을 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줄기 세포와 분자 수준의 세포 복구 기술, 인공 장기나 동물의 장기를 이종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수명이 끝난 기계를 살려서 다시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전기는 원자력발전소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수력이나 화력, 풍력이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과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명이 다한 원전, 거기다 564번째 고장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사고 투성이…….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그치지 않고 밀실에서 핵마피아의 이윤 보장을 위한 재가동하겠다는 월성 원전 1호기는 폐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굳세게 살아온 지난 날

4월 결연 대상자 - 이수길 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현인 선생의 노래 ‘굳세어라 금순
야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올 초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
을 보면 초반부에 가사처럼 흥남부
두에서의 애뜻함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941년생으로 올해 75세가 되신 이
수길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
하여 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습니
다.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은 내가 겪
은 것과 비슷하게 영화가 그려졌다며
담담히 그 때를 회상하시더군요. 구
체적인 가족사를 들려주시진 않았지

만 1950년 12월 영화처럼 눈보라가
휘날리고 바람이 차가운 흥남부두에
서 어르신은 미국의 수송선 메레디스
빅토리호에 구사일생으로 몸을 신습
니다.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며 도착한
곳은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였습니다.
그 곳에서 두 달 여를 머물다 식구도
친척도 없는 적적함에 부산으로 올
라오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
이든 해야 하건만 10살에 불과한 아
이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전쟁 통
에 마땅한 일도 없었지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54년 7월, 어
르신은 부산 초량역 철도기지창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기차에 치였고 다행
히 목숨은 구했지만 14살 소년의 오
른쪽 무릎 아래 있어야 할 종아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
나 다리를 본 느낌을 여쭙어보았더
니 60년이 넘는 일인데 어떻게 기억
하겠냐며 그 당시의 기분을 설명해주
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힘드서
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신 것이고, 다
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지요.

사고 이후 부산의 스웨덴 적십자 병
원에서 의족을 단 채 2년간 재활 치료
를 받고는 다시 세상 밖에 홀로 던져
진 후, 그 뒤로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을 정하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
며 낱फल이로 세월을 보내십니다. 그
러다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운 좋게
인정 많으신 사장님을 만나 방음공사
일을 배우게 되셨지요.

이수길 어르신은 동대문 방산시장
에서 이름 석 자를 대면 모르는 사
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
실함을 인정받으며 20년간 일을 해
오셨지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

며 일을 돕는 두 분의 일당은 늘 먼
저 챙겨주고 남은 돈을 가져가셨다
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어
떤 분인지 확연히 알겠더군요.

열심히 사셨건만 세월은 무정했
습니다. 3년 전부터 신경쇠약이라는
병이 어르신을 찾아온 것이지요. 몸
의 한쪽이 마비가 와 동부시립병원
에 갔더니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혈압 약과 당뇨약 복용은 기본이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는 신경안정제를
드셔야 합니다. 치아 4개를 발치했더
니 드시는 것도 수월치가 않습니다.
식사를 잘 하셔야 하건만 수급비 50
만 원 중에 26만 원을 햇빛도 잘 들
지 않는 고시원의 방값과 그 외 병원
비, 약값으로 내고나면 제대로 된 식
비 마련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75년을 살아온 이수길 어르신
에게 따뜻한 관심과 정성으로 가족
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0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소비에는 책임이 따른다.

- 우리는 왜 음악을 공짜로 듣게 되었는가?

글 • 정주아(작곡가)

88년생인 필자가 음악을 처음 접했던 때에는 이 땅에 음반 가게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 시절에는 미리 듣기가 없었다.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내면 발매 일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음반 가게로 달려가 카세트테이프나 CD를 사서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기에 넣고, 사진이 들어 있는 가사집을 손으로 만지며 너털너털해 질 때 까지 그저 순서대로 들었다.

물론 이 때에도 빨리 감기 버튼을 통해 트랙을 건너 뛸 수 있었고, 문방구 같은 곳에선 최신 음악을 20곡 정도 묶어 파는 불법 믹스 테이프도 살 수 있었다. “돈 주고” 음악을 듣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했냐면, 심지어는 조그만 전단지들 보고 전화를

해서 트랙에 지정되어 있는 번호를 누르면 앨범에 있는 곡을 1곡씩 들을 수도 있었다. 나는 아직도 집에서 10분이나 걸어 나가 공중전화에서 H.O.T.의 열맞춰!를 듣던 순간이 생생하다. 그것도 동생과 수화기를 번갈아가며 나눠 들었던 기억 말이다.

그러다 천리안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획기적인 수단이 등장했고, 이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악명 높은 소리바다의 탄생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생각해보라. CD에서 추출해낸 음원을 개인이 공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공짜로 듣는 음악에 대한 편리함은 죄의식 없이 우리

들의 머리에 박제되었다.

얼마 전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마찰이 크게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밀크(삼성전자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페이스북 광고였다. 다시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광고다.

“노래 들으며 즐길랐더니 돈 내놓으라고 닥달”, “밀크를 설치하지 않고 버티다 호갱이 되지 말라”는 등의 자극적이고 무식한 문구들로 논란이 커지자 “창작자의 고통 속에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유통하시는 음악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밀크는 어플을 깔기만 하면 국내의 360만 곡의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앱으로 출시 3주 만에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나 음악을 공짜로 소비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창작자들의 반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맺은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사용자가 일일이 음악을 고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몰랐던 음악을 새로 발견할 수 있다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CD 판매와 다운로드 매출을 넘어서면서 여러 스트리밍 전문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한 국내의 밀크와 비트뮤직도 유료화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무료 모델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밀크 관계자들은 출시 당시 “밀크가 차트 중심의 기존 음원 서비스

와 달리 자체 큐레이션(상황이나 기분에 따른 음악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음원 소비를 촉진하고, 불균형한 국내 음원 소비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음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 보다 자유로운 가격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단, 정당한 음원 사용료의 지급 및 음악 감상자의 올바른 소비인식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CD 제작 업체의 말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유명 가수들은 2,000장, 인디 음악 뮤지션들이 200장을 찍는다고 한다. CD, 그러니까 음반 판매로 얻는 수익은 없다고 보면 된다. 더 이상 뮤지션들에게 음반 판매는 주 수입원이 아니며, 음원 판매가 아닌 것에서 수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뮤지션들이 본연의 업에 충실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창작물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매출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

이고, 상업적인 음악을 만들기가 쉽다는 말이다.

우리가 토토가니 복고 음악 열풍이니 하면서 과거의 음악으로 자꾸 회귀하는 이유는 어쩌면 돈 내고 음악 듣기는 싫은데, 좋은 음악은 듣고 싶은 책임감 없는 소비자의 심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왜 아이들은 맨날 저렇게 벗고 나오냐”, “저게 음악이냐” 라고 욕하기 전에 차트 1위에 올라갈만한 시끄러운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과 시스템의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이 기꺼이 기다려서라도 듣고 싶은, 진짜 음악을 듣고 싶다면 말이다.

여보 미안해

글 • 강인철

참 이상한 일이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삼 년 전부터 봄이 오면 싱숭생숭 기분이 들뜨곤 한다.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나들이라도 좋을 성 싶어 의중을 떠보지만 마음은 동감(同感)이라 하면서도 차멀미 뱃멀미를 앞세워 선뜻 나서지 않는다. 그럴 때는 조금 섭섭하다.

지난해부터 아내를 설득한 보람이 있어 드디어 교토(京都)에 다녀왔다. 속으로는 후지산(富士山)까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건 무리일 것 같아 말도 꺼내지 못했다. 꼭 한 번 이렇게 둘이서만 일본여행을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젊어 신혼 초에 학업 차 현태탄을 사이에 두고 2년여나 생이별을 했던 게 늘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유학시절, 예전의 그때나 다름없이 교토의 봄은 핑크 빛 일색이었다. 눈(目)길이 닿는 곳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 꽃잎들이 눈(雪)처럼 쏟아지는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딱히 일본이었다. 일삼아 ‘하나미(花見: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 특유의 문화를 아내는 매우 낯설어했다. 이국의 이색적인 봄을 아내에게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이들은 일 년 내내 계절마다 꽃 축제를 참 많이도 연다. 하지만 그 중 봄에 피는 벚꽃놀이가 단연 으뜸이다. 꽃을 볼 수 있는 날이라야 고작 열흘 안팎 피었다가 훌연히 저 버리기 때문에 적시(適時)를 놓칠새라 매스컴은 매시간 뉴스끝자락에 이른바

사쿠라 전선이라 부르는 일본 열도의 벚꽃 개화라인을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한다.

교토는 꽃만이 핑크가 아니다. 재래시장에서 백화점과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온통 벚꽃상품 일색이다. 떡, 과자, 도시락, 장난감, 의상, 기념품 등 어느 것을 봐도 벚꽃이 수놓아져 있다. 생활 속에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문화유산이지 싶다.

아침밥이 시원찮은 맛이었을까, 훈훈한 봄기운에 때 이른 시장기마저 들어 가게에 들렀다. 먹고 싶은 것들 다 골라 보라는데도 아내는 선뜻 도시락을 집어 들지 못하고 서성인다. 물어보니 손대기가 미안할 만큼 알뜰도록 도시락이 예뻐서라고 했다.

연못가 빈 돌 벤치에 도시락을 펼쳤다. 옆자리에 있던 일본인 중년 부부가 우리를 보고 동시에 “오- 벤또!”를 외치고는 번갈아 쳐다보더니 ‘오이시~나~(맛있겠어요)’하며 연신 호들갑을 떠다. 고맙다고 정중히 답례는

했지만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할지 이들의 언어와 표정과 정서를 나는 지금도 다 알 수가 없다. 꼭 정치적 이슈나 한일감정을 논하지 않더라도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대목 중 하나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던 아내의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역사기행은 잠시 미루고 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보고 싶은 곳으로 향했다. 냇가의 가로수가 그림처럼 어우러진 청수사(淸水寺) 쪽 개울가다. 사람들이 쳐다본다며 계면쩍어 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이게 얼마 만이냐며 아내가 실눈으로 흘겨본다. 서울의 여의도 벚꽃 축제를 생각하면 이곳은 너무나 조용하다.

고풍스러운 전통 가옥이 어우러지면서 고즈넉한 멋이 그대로 잠자고 있는 벚꽃터널을 지나니 땅에 닿을 듯 늘어진 버들꽃가루가 실바람에 눈송이처럼 흩날린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으면서 아내가 탄성을 지를 때는 나도 덩달아 행복했다.

그 많은 꽃들이 한 순간에 지는 모습에서 일본인들의 근성(根性)을 엿볼 수 있다고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더니, 아내는 뜻밖에도 영원히 곱기만 할 줄 알았던 젊음이 단 걸음에 도둑처럼 달아난 걸 생각하니 자신이 꼭 벚꽃을 닮은 것 같으며 쓴웃음을 짓는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삶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지만, 학창 시절에 오늘처럼 손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단 한 번만이라도 걸어 보았더라면 지금처럼 빛진

마음을 짙어지고 긴긴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을 것을...

이제와 언감생심이었던 그때를 돌이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마는 이렇게나마 꽃비를 맞으며 손잡고 걸어 보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꿈만 같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속내일 뿐, 며칠간의 짧은 여정(旅情)으로 아내에 대한 지난날의 미안죄음을 감히 보상(補償)할 수 없음이 못내 안타깝다. 오늘따라 새삼스레 아내의 주름진 눈자위가 자꾸만 눈에 밟힌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요~!”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중앙모임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과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 리폼 봉사팀에 함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이나 디자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를 비롯한 친환경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시는 분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기다립니다. (02.741-4696)

바람이 꽃피우다

글 • 김지연(희곡작가)

마음을 새로이 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는 곳을 바꾸거나, 하는 일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무언가 나를 둘러싼 것을 바꾸어야만 나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행하기 힘들죠. 나를 바꾸려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바꾸려면 또 내가 새롭게 힘을 내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지가 굳고 정지에 이르신 분들이라면 한 마음 돌려먹는 것만으로도 자신 뿐 아니라 주변까지 환하게 바꾸어 내는데, 범속한 우리네 팔자는 바꾸고 싶다는 마음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립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절로 바뀌

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계절이 바뀝니다. 피부에 와 닿는 햇살의 변화를 느끼게 될 때면, 다들 묻어두었던 꿈을 꺼냅니다.

봄은 그러한 우리네 마음에 사랑 사랑 희망을 주는 참 알미운 계절입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절로 벌어지고, 종종거리던 걸음도 한껏 빨라집니다. 봄은 바람을 타고 와서 나무를 흔들며 깨우고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너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속삭임으로 귀를 간질입니다. 가슴을 가득 부풀게 하는 바람을 따라 등실 날아오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흐지부지 연이 끊겼던 옛 사람도 어떤지 봄이라면 다시 만나 타오를

것 같은 기대가 한가득 피어납니다. 부질없게도.

희망이 계절 따라 지는 꽃같기만 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사람의 존재가 봄바람 불어올 때 피고 봄바람 사라질 때 지는 꽃처럼 가버린다면 얼마나 허전한가요. 그래서인지 많은 예술가들이 봄을 노래했습니다. 봄이 주는 희망을 노래하기 보다는, 그 희망 뒤에 오는 절망이 얼마나 잔인하며, 꽃이 지고 난 자리가 얼마나 스산한가를.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쯤, 꽃처럼 덧없는 삶의 의미를 꽃에 비유해 논했던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제아미(世阿彌)라는 일본인입니다. 그는 종교연극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춤을 추고 신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후손들의 예술혼이 끊이지 않고 타오를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예술혼을 한 번 피워내기가 얼마나 어려

운가를 잘 알았던 그는 자신이 연기를 하며 느꼈던 것을 전하고자 하여 후손에게 남길 문장을 저술합니다. <風姿花傳>이라는 문장입니다.

바람의 모습이 꽃피우는 이야기를 전한다니,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제목입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예술을 꽃피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에서 바람은 예술을 일컫는 것입니다. 風은風格, 즉 풍채와 품격입니다. 과거에는 예술에 갖는 품위와 유파의 특성을 풍격이라고 했지요. 꽃은 배우가 관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에너지, 매력, 사랑스러움, 메시지 같은 것을 통칭하여 비유한 것이고요. 요즘 말로 하자면 '아우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리스마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아미(世阿彌)는 이 문장에서 배우가 뽐어내는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떤 꽃을 피워야 하는가를 세심하게 나누어 말합니다. 막 배우의 길에 입문한 아역배우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향기가 질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고 하였고, 십대 배우는 그 존재 자체가 꽃과 같아 굳이 꽃 피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무대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환해진다고 합니다. 이십대의 배우는 매력과 경향이 결합하여 가장 매력적이며 뛰어난 꽃을 보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삼십대 배우는 노련한 꽃을 피우기 시작하지만 외모가 시들기 시작하니 사십대부터는 어린 배우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조연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오십대를 넘기면 기운 잃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이 어렵듯 배우로써 관객을 매료시키기 어려워지니 욕심을 버리고 무대를 비울 줄도 알아야 한다고 거침없는 쓴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제아미가 나이에 따라 절로 얻어졌다 절로 잃어버리는 매력에 순응하라는 말만을 적었다면, 그의 연기론이 몇 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살아남아 배우들의 지침이 되었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는 배우들에

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어린 배우가 피우는 꽃은 쉽게 피우는 만큼 쉽게 질 수밖에 없으니 부단히 노력하여 기예의 대가가 되고 노련해지라고 충고합니다. 십대 배우는 나이 때문에 절로 피운 꽃을 자신의 재능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일침하지요. 그리 착각한다면 남은 생을 배우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리고 삼십대 사십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에 적응하고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겸손해질 것을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을 놀리기도 어려워진 노 배우가 무대에서 꽃을 피우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어릴 때처럼 쉽게 자주 피울 수는 없으나, 아주 작고 소박한 꽃이라도 피워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피워낸 꽃은 어린 꽃나무에서 돋아난 수만 송이 꽃의 화려함보다도 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고사해가는 고목나무가 필사적으로 틈새 꽃순은 아름다움보

다도 감동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목이 꽃피우고 바위에서 꽃피우는 것만큼 어려운 노년의 성취는, 젊은 날의 부단한 훈련 끝에 오는 성취라고.

굳이 배우의 삶 뿐 아니라,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과정을 겪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어리다는 것만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해내도 기특하다는 말을 듣지요. 십대의 머리는 기억력도 흡수력도 순발력도 뛰어나지만 합니다. 뭘 해도 금방 배우고 또 해내지요. 이삼십 대까지는 밤새 일하고 세상과 싸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만만함이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선가 꿈틀거리며 나를 받쳐줍니다. 그러나 점점 머리와 감각과 마음이 굳어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떠밀리고 밀쳐지면서 사회의 중심에서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거듭나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은 더해져가건만, 야속한 세월은 되레 우리에게서 젊음과 기회를 앗아가기만 합니다.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무대의 중앙을 비워주고 조용히 물러나 서러움과 질투를 다스리며 나이 먹은 값을 해야 하죠. 때론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꽃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어렸을 때만큼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어릴 때만큼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고목나무도 노력하면 꽃을 피우고 정성이 지극하면 바위에도 꽃이 피입니다.

우리는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계절을 감탄하지만, 꽃은 그저 나무가 자신의 계절에 충실하려고 묵묵히 피워내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절에 맞는 꽃을 피우려 노력하다보면, 스스로 충실한 삶이 겹치지요.

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엔 꽃이 피고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삶

글 • 김선에

〈인터스텔라〉는 내가 처음으로 극장에서 두 번 본 영화였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는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많은 작물이 멸종하여 먹을 것이 부족해진 시대를 그린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기후나 생존을 위협하는 재해는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황사, 갈수록 잦아지는 심한 홍수와 가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이런 현실을 만들어 내는 주범은 우리 인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전국의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

지 2만 6천 마리를 생매장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350만 마리나 죽인 적이 있다. 그 많은 생명을 땅에 묻고도 또 다시 그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은 공장식 밀집사육을 하는 큰 농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좁은 곳에 많은 가축이 모여 살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육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육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대규모 가축질

병의 원인이 된다. 또 고기를 얻으려면 물과 사료와 에너지 등 자원을 많이 쓰고, 대형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나는 전에 채식을 한 적이 있는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면서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선택권이 있을 때는 채식메뉴를 고르려 한다. 언제까지나 문제를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공장식 축산으로 고기를 생산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동물이 병에 걸리고 생매장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죽음이다. 살기 위해 지금처럼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시대다. 나도 과식을 하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는 굶주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다. 한 쪽이 무언가를 넘치게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쪽에서는 부족함에 고통 받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내

게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부족한 이웃과 나누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인터스텔라〉를 보러 극장에 간 날, 내 옆자리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앉아 있었다. 영화를 보던 중 나는 극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 보며,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 잠시 동안만 머물다 가는 존재임을 기억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아이를 비롯해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후대에 떠넘기고 싶지 않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도 놀랄 만큼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공감대화 세 번째 항목 ‘바람’

글 • 고희희 (공감대화 개발원장)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기대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어느 분의 마음에 닿아서 그 분이 말하는 법을 바꾸어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법을 이렇게 바꿔야겠군.'이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더라도,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가 가득하거나 걱정하는 저의 두 가지 느낌은 두 가지의 '바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기대가 가득한 느낌은 공감대화법으로 삶이 풍요롭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고, 걱정되는 느낌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까봐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낌과 바람은 서로 연결되

어 있습니다. 느낌의 밑에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어서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감대화 할 때의 세 번째 항목 '바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느낌은 공감대화의 4가지 항목 -상황, 느낌, 바람, 부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느낌'을 세밀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느낌이 생겨난 '바람'을 알아내는 것이 이 대화법의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느낌이 생기고, 성취되지 못하였을 때 느낌이 올라오고, 미래에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시를 좋아하는 학생이 친구를 12

시에 서점에서 만나기로 하여 시간 맞추어 책방으로 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은 12시에 책방에 들어서서 친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책을 구경하다가 읽고 싶었던 시집을 발견하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시집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를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시계는 12시 30분이었고, 친구는 막 책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 학생의 느낌은 '고맙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고마워! 네가 30분 늦게 와서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어. 읽고 싶었던 시집을 읽었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느낌'은 '고맙다'이고, '바람'은 '읽고 싶었던 시집을 읽을 수 있는 30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충족되어서 고마운 느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12시에 책방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하여서, 12시부터 책방에 가서 서성거리며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12시 30분에 책방에 왔다면 이 학생은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이 화나는 느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를 갖고 싶은 바람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서성거린 30분을 소중히 사용하고 싶은 바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온 친구에게 '화가 내!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친구를 갖고 싶은데, 연락도 없이 30분 늦게 온 것은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널 기다리느라 30분 동안 초조했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상황의 예처럼 느낌을 말하고, 바람을 말하는 것이 공감대화의 핵심입니다. 친구가 30분 늦게 책방에 도착한 것이 기다린 학생의 '바람'을 자극한 것입니다. 자극을 받은 각각의 바람에서 각각의 느낌이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내 느낌의 원인이 아닙니다. 단지 내 바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의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원인은 내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게 와서 화가 나!' 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공감대화는 상대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 내가 늦게 와서 ~~~이 충족되지 않아서 △△△한 느낌이다.
 - 내가 늦게 와서 ---이 충족되어서 △△△한 느낌이다.
- 라고 말하는 것이 공감대화입니다.

여기서 공감대화의 또 다른 시각으로의 말하는 법, 상대의 기준 대화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태 설명한 것은 상황에서 내 '느낌'을 말하고, 내 느낌이 생긴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상대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상대의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바람에 충

실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훈련은 더욱 바람직한 단계인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집중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집중하여 말한다면, 헐레벌떡 책방으로 들어오는 친구에게 '시간 맞춰 도착하지 못해서 엄청 뛰었구나. 늦어서 미안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친구는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이 때 친구의 느낌을 미루어 짐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대화법이 공감대화입니다. 늦어서 서둘러 들어오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말로 해준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놓일 것이며, 친구를 이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너그러워 질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지지 않을까요?

(공감대화는 총 6회 연재됩니다. 다음 5회에는 '부탁'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숲기행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찾아서

1.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
 2. 예정지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3월 9일부터 전화 접수 받습니다.
 - 준비물 : 개인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
- (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5월부터 참가비가 변동됩니다. (회원 35,000원 / 비회원 40,000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4.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결식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반반 취소, 변동을 줄여 다른분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함이니 협조바랍니다.)
 - * 신청 접수하실 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용, 등록된 회원이 아닌 경우)를 꼭 알려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하세요.
 - 문의·접수처 : 중앙모임 사무국 02-741-4696

녹색 나눔 장터 참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을 판매하고,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녹색 나눔 장터'를 길상사 경내에서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장터에 참여하실 분은 새 물건이 아닌 중고물품이어야 하고, 수익금의 20%는 불우 이웃돕기 기금으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 줄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4월은 마지막 일요일 26일, 길상사 경내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결식이웃 밑반찬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참여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인사회복지시설 정기 봉사 안내

- * **진인노인요양원 정기봉사**: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묘회원 정기봉사**: 묘회원 자원 활동은 농사 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봉사**: 서울노인복지

센터 자원 활동은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단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서 생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4월 26일(넷째 일) 오전 11시/설법전/농부 철학자 윤구병 초청특강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목, 금요일(2,3,16,17,23,24,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3월~11월 둘째 목요일(9일)/맑고 향기롭게 반찬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매주 월요일(6,13,20,27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 첫째 일요일(5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둘째 일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발벗 봉사자 정기모임: 넷째 화요일(28

일)/오후 1시30분/스탈다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셋째 토요일(8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5일(첫째 일), 26일(넷째 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1,8,15,22,29(특강 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 아이크림)/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 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7,14,21,28일)/세계일화실
- 녹색 나눔 장터: 4월 26일(넷째 일) 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 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양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 광주모임에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첫 집을 3월 27일 개원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2014년 중앙모임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기본 수입	일반후원	일반(회원)후원	271,891,521	사업비	장학사업비	장학금	55,732,940	
	결식후원	결식후원	188,102,031		결연가족 후원사업비	결식이웃후원	191,337,335	
특별후원		결식이웃후원	928,000			결연가족후원	35,279,328	
		일반후원	24,564,320			의료비지원	17,500,000	
		장학금 후원	21,758,790			자연재해 구호성금	6,000,000	
		맑고향기롭게 살기캠페인	36,849,312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10,306,180	
		자연활동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8,965,000	일몰환경 지킴이모임	13,046,085	
자연활동		일몰환경 지킴이 모임	28,171,750		지역모임 사업비	녹색나눔장터	2,705,255	
		저작권 수입	저작권 수입			6,208,630	지부활성화	46,200,000
기타		이자수익	16,843,697		계몽활동비	소식지 발간및 배포	52,760,710	
		이자소득세 환급분	10,412,770			연꽃스티커 제작및배포	6,788,000	
		예수금	10,287,513			기타홍보물 제작 및 배포	21,197,680	
		시스템유지 보수비	3,854,400			맑고향기롭게살기 캠페인	6,553,600	
		회원교육, 교류비	9,688,330			일반후원 수수료	3,437,915	
		운영비	173,383,279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173,383,279
합계		624,983,334	지출 합계			660,253,277		
전년 이월금		653,474,950	차월 이월금			618,205,007		
총 계		1,278,458,284	총 계			1,278,458,284		

❖ 2015년 중앙모임 사업계획, 예산

(단위 : 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지출예산
관	항	목		
마음	계몽활동비	소식지발간 및 배포	월간 '맑고 향기롭게' 정기 발간	5,400
		시스템유지 보수	법인 회원정보 네트워크 관리비	2,400
		회원교육, 교류	자부 사무국 교류, 회의, 봉사팀 정기 간담회, 2030청년 문화 모임, 봉사자 교육 지원, 모범활동자 표창 및 송년회	1,100
		맑고 향기롭게 살기 캠페인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강연회, 송년회, 세미나	1,700
		기타홍보물	사업홍보 인쇄물 제작, 동전모금 저금통 제작, 후원회원 배포 용 달력 제작	1,600
		일반후원 수수료	CMS, 지로수수료	350
		장학사업	장학금	전국 일반 고교생 대상 40명 내외 선정-수업료, 육성회비 전액 1년간 지급
세상	결연가족 후원	결식이웃 후원	결식이웃, 독거노인, 극빈자정체대4207기, 명절 물품 후원, 분기 별생필품상품권전달, 월 1회 김치 전달, 연말 김장 지원(4000여 포기), 전화발벗사례관리, 자비(의등발하)(관등)후원	19,856
		장애인시설, 사례관리	장애인시설, 사례관리, 극빈자 재정지원, 복지시설정기봉사	1,270
		위탁운영	월곡청소년센터 위탁운영지원	1,000
		의료비 지원	극빈자 의료비 지원 사업	1,000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온, 오프라인)모금- 대상자 후원, 모금 캠페인 활동	3,110
		구호성금	국내, 외 자연재해 구호성금	1,000
		기타특별 후원	정기후원사업외 특별후원(녹색장터 수익금)	500
자연	자연활동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찾아서	1,120
		일몰환경 지킴이 모임	친환경 화장품 강좌 및 판매, 의류 재활용 리폼,	1,500
		녹색나눔 장터	녹색 나눔 장터 운영, 캠페인 연계 부처님 오신 날 친환경 체험 마당, 사랑나눔비자회참여	300
		환경연대 활동	도심 속 생태사찰 가꾸기	250
자부연대	지역모임	자부활성화목적으로 활동비지원 (각지역모임 마음, 세상, 자연사업 전개)	2,520	
운영비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중앙모임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19,434
총 계				72,610

다라니기도

- 일시: 4월 4일(토) 오후 8시
- 장소: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4월 11일(토) 오후 8시 30분
~4월 12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경전반 「법화경」 개강 안내

- 일시: 4월 7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설법전
- 강사님: 현견스님

4월 주말 선 수련회 224기

- 224기: 4월 18일(토)~19일(일)
- 225기: 4월 25일(토)~26일(일)
- 장소: 설법전
- 참가비: 5만원(입금순 50명 마감)

초파일 연등공양 안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종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극락전) 연등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영가등	3만원

연등 달기 운력 봉사자 모집

길상사 경내에 환히 밝힐 연등달기 운력에 일손이 필요합니다. 도움주실 신도님께서는 중무실로 연락주세요.

저녁예불 시간변경 안내

하절기(4월 ~ 9월) 저녁예불시간이 변경됩니다.
기간 : 4월 1일(수) ~ 9월 30일(수)
시간 : 저녁 7시

극락전 인등 접수 안내

극락전 인등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신청하실분은 종무소로 문의 해주세요.

마을버스 '성북 02번'

길상사 연장 운행 안내

4월 1일 부터 성북 02번 마을버스 노선이 길상사까지 연장 운행되어, 길상사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6번 출구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성북 02번을 타시면 길상사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려가실 때는 한성대역 5번, 2번 출구 및 서울 간선버스 정류장과 연결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 배차간격 : 9~11분

* 첫차 : 새벽 6시 / 막차 : 밤 12시 15분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5월 2일	오후 8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5월 9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5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5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5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5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회향	5월 3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참여를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2030 문화와 함께하는 푸른 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40~50대 이상의 회원님이 주축이 되어 맑고 향기로운 활동(밀반찬 나눔, 전화 말벗, 의류리폼, 녹색나눔장터, 각 시설자원활동 등등)을 펼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의 참여와 활동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맑고 향기롭게 회원 또는 길상사 신도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 중 20대에서 30대 청년들간의 문화 만남을 가지고 차후 봉사활동까지 펼칠 '2030 푸른모임'을 새롭게 꾸려보려 합니다. '푸른모임'의 명칭은 법정 스님께서 지어주신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의 초창기 이름으로 긴 휴식기간을 갖고 있는데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의미도 있으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왜 모여?

중앙모임에서는 마음사업의 한 부분으로 소규모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2030 푸른모임을 통하여 장애인 및 소규모 문화단체를 지원 하면서 청년회원들간의 교류도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바꾸어나갈 청년들이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모여?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또는 자녀 중 20~30대 남녀

모여서
뭐하지?

5월부터 매월 한 번 정도 연극 및 공연 관람

참가비는?

공연 관람료의 평균 1/3 본인 부담(나머지 금액은 협찬 및 지원)

접수는?

4월 24일까지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사무국 02)741-4696으로 전화 및 방문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알림' 참조(www.clean94.or.kr)



2015년 4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42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 내
☎ 02)741-4696